



미 증시, 고용 부진 vs 제조업 지표 개선 등으로 혼조세

미국 증시 리뷰

1 일(수) 미국 3 대 증시는 8 월 ADP 민간고용 쇼크 vs 8 월 ISM 제조업 PMI 호조 등 엇갈린 경제지표 결과에도 장 중반까지 상승 흐름을 보임. 이후 지수 고점 부담, 3 일(금) 비농업부문 고용지표 결과에 따른 연준의 테이퍼링 일정 변화 가능성을 둘러싼 경계심리 확대로 상승폭을 반납하며 혼조세로 마감(다우 -0.14%, S&P500 +0.03%, 나스닥 +0.33%). 업종별로는 부동산(+1.7%), 유틸리티(+1.3%), 커뮤니케이션(+0.5%) 등이 강세, 에너지(-1.5%), 금융(-0.6%), 산업재(-0.4%) 등이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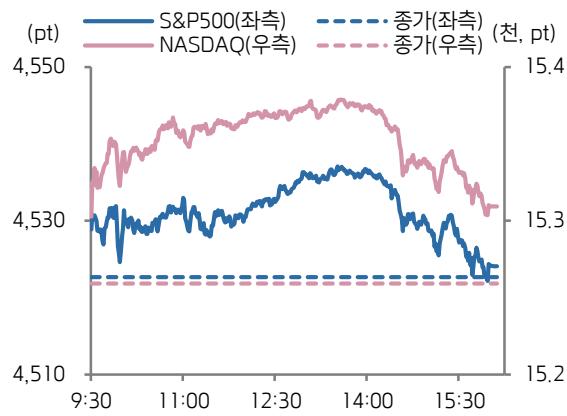
8 월 ADP 민간부문 신규고용은 37.4 만건으로 전월(32.6 만건)에 비해 소폭 늘어났으나, 시장 예상치(61.3 만건)는 대폭 하회. ADP 측에서는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 증가가 일어나고 있지만, 델타 변이 확산이 미국의 전반적인 고용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평가.

8 월 ISM 제조업 PMI 는 59.9 로 전월(59.5) 및 예상치(58.6%)를 상회. 고용(52.9→49.0)은 신규주문(64.9→66.7), 생산(58.4→60.0), 재고(48.9→54.0) 등 여타 세부 주요항목들이 모두 개선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인 제조업황의 호조세를 견인. 또한 병목현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급등세를 보였던 가격지수(85.7→79.4)가 지난해 12 월 이후 처음으로 80 선을 하회.

미국 증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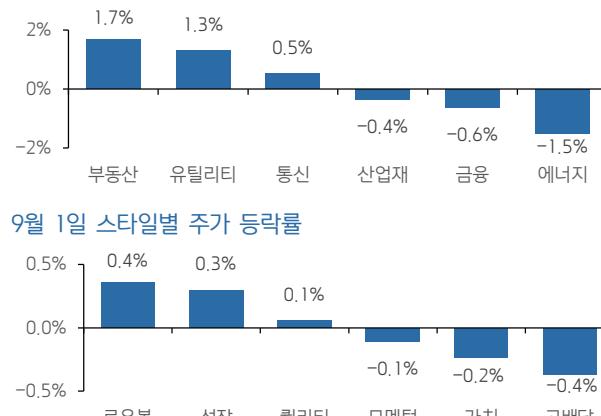
ADP 의 민간고용이 쇼크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유추해볼 수 있듯이, 고용 회복세가 크게 지연됨에 따라 연준의 테이퍼링 공식화 일정이 늦어질 가능성이 존재. 그러나 최근 수개월 간 ADP 의 민간고용 결과와 노동부의 비농업부문의 결과가 서로 다른 모습을 보였던 사례가 자주 출현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이는 ADP 지표가 비농업부문 고용지표의 선행지표로서의 영향력이 축소된 것일 수 있는 만큼, “고용부진→연준의 테이퍼링 공식화 지연”이라는 안도감을 갖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판단. 한편, ISM 제조업 PMI 가 주요 세부항목들에 걸쳐 호조세를 보였다는 점은 델타 변이 확산이 제조업체들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이었다고 볼 수 있음. 또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나타내는 가격지수의 하락은 공급 측면에서 기인한 인플레이션 급등 현상이 해소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금번 ISM 제조업 PMI 결과는 증시에도 긍정적인 요인에 해당된다고 판단.

S&P500&NASDAQ 일중 차트(9월 1일)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9월 1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heck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14%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1.28%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31%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156.6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합권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카카오뱅크 블록딜 수요예측으로 인한 해당 주식 포함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
2. 8 월 수출 호조에 따른 수출 대형주들의 주가 상승 여부
3. 최근 3 거래일 연속 강세에 따른 차익실현 물량 출회 가능성

한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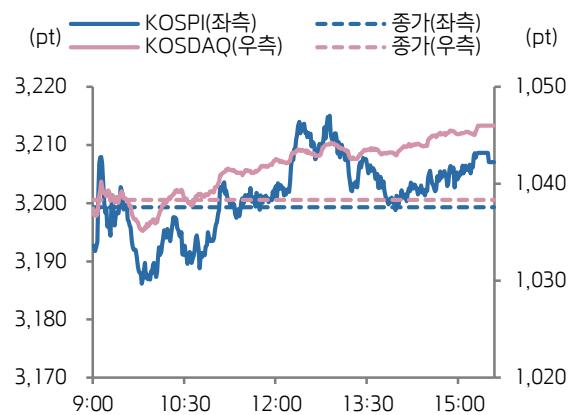
1 일(수) 한국 증시는 장 초반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주요국 제조업 지표 부진, 전거래일 급등에 따른 단기 차익실현 물량으로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이후 한국의 8 월 수출 호조 속 외국인 순매수 전환에 힘입어 대형주 위주로 반등에 나서면서 상승 마감(코스피 +0.2%, 코스닥 +0.7%)

업종별로는 은행(+5.1%), 통신(+3.9%), 기계(+1.5%) 등이 강세, 화학(-1.4%), 운수창고(-0.4%), 의약품(-0.2%) 등이 강세. 수급별로는 외국인이 1,185 억원 순매수, 기관과 개인이 각각 316 억원, 1,0326 억원 순매수를 기록.

한국 증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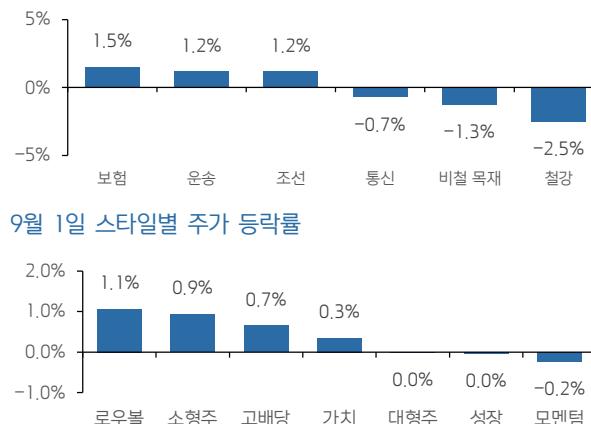
한국 증시는 국내 수출업체들의 실적과 관련 깊은 미국 ISM 제조업 PMI 호조에도, 최근 3 거래일 연속 강세에 따른 일부 차익실현 물량 출회 및 미국 고용지표 대기심리로 제한적인 주가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 다만, 전거래일 발표된 8 월 수출 지표 호조와 더불어 원/달러 환율도 급등세가 진정됐기 때문에 대형주들의 주가 흐름은 견조할 것으로 예상. 추가적으로 최근 ECB 측에서 테이퍼링 조기 실시 주장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금일 한국 포함 아시아 증시에도 부담요인이 될 수 있음. 다만, 현재 시장 참여자들은 ECB 보다는 연준의 정책 변화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ECB 의 영향력은 작을 것을 전망. 금일 업종 및 종목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카카오뱅크의 대규모 블록딜 수요예측 소식임. 약 1 조원에 달하는 물량이므로, 금일 카카오뱅크 포함 관련 테마주들의 주가 변동성 확대에 유의할 필요.

KOSPI & KOSDAQ 일중 차트(9월 1일)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9월 1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위 3



자료: Bloomberg, Quantwis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시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있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